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6. 28.(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 과장 박영호, 사무관 장기문			
	부산 항만 공사	물류 정책실		• ☎ (044)200-5750, 5753			
		신항 지사		• 실장 진규호, 과장 황인중			
				• ☎ (051)999-3110, 3112			
				• 지사장 김기주(7.1~)			
				• ☎ (051)999-2110, 2126~2128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해수부 · 부산항만공사, 항만 인근 화물 임시 보관장소

[최대 1만TEU] 제공하여 수출화주 애로사항 해소 추진

- 6. 29 일부 활용 개시 7. 20 1,400TEU 추가 필요 시 8월 0후 7천TEU 이상 추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이하 BPA)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 화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만 인근의 여유 장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수출 화물 임시 보관장소를 긴급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주요 항만들의 연쇄적 적체^① 발생 및 선박 부족^②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부산항(신항)도 평소에 비해 높은 장치율(장치장에 컨테이너가 쌓인 비율)^③을 유지하면서 화물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수출화물의 반출이 어려워져 수출 화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① 미 서안(LA, LB항 등)은 선박이 항만 밖에서 10일 이상 대기, 싱가포르·중국 등은 3일 이상 대기 발생, 부산항은 0.5~1일 대기(코로나 이전에는 간헐적 0.5일 대기)

② (글로벌 유희선박 비율) ^(20.6)11.2% → ^(20.8)4.1% → ^(20.10)1.8% → ^(20.11)1.5% → ^(21.2.1)1.0% → ^(21.4.1)0.8%

③ (부산항신항 장치율) ⁽¹⁹⁾68.8% → ⁽²⁰⁾74.0% → ^(21.1)78.6% → ^(21.4)83.0%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적선사의 임시선박 투입^①, 대체 장치장 운영^②, 터미널 운영 효율 개선^③ 등을 추진하여 터미널 장치율은 점차 개선^④되고 있으나, 부산항을 찾는 수출 화주들은 화물 보관장소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 ① 미주·유럽·동남아 항로에 총 40척 투입('20.8~, 11.1만TEU)
- ② (신항) 웅동배후단지, 안골 장치장, 다목적부두 / (북항) 감만부두 유희선석 등
- ③ 터미널 장치능력 상향(인력·장비 추가 투입, 단적수 상향 등), 선적위주 선박 우선 처리 등
- ④ (부산항신항 장치율) ^(21.4) 83.0% → ^(21.5) 82.1% → ^(21.6.1~25) 81.7%

이에, 해수부와 BPA는 부산항을 통해 수출되는 화물들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신항 인근의 여유 장치장과 신항 서측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이하 서'컨' 배후단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BPA는 배후단지 등 신항 인근 장치장 운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화물을 보관할 여유가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 6월 29일부터 수출화주들에게 제공하는 등 협조할 계획이다.

추가로, 현재 유희 상태인 신항 서'컨' 배후단지를 수출화물 임시 보관 장소로서 한시적으로 활용(~2022 하반기)하도록 제공한다. 사용 가능한 약 24 만m² 중 우선 4 만m²(약 1,400TEU 보관 가능)를 긴급 제공하고, 필요 시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 공간은 부지 정비작업 후 7월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화물들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여유 장치장 현황 및 서 '컨' 배후단지 이용 관련 세부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누리집 (www.iel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입물류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해운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우리 항만을 이용하는 수출화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의 임시 보관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업계에서 글로벌 선박 부족 등의 현상이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수출 화주들의 어려움이 악화되지 않도록 터미널 장치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화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신항 대체장치장 위치 및 수출화물 임시보관장소



□ 수출화물 임시보관장소(서 '컨' 배후단지) 현장 사진대지

